

# 미학적 입장에서 분석한 그림책의 매력

《그림책》 펴낸 최윤정씨



최윤정씨(문학과지성사 사진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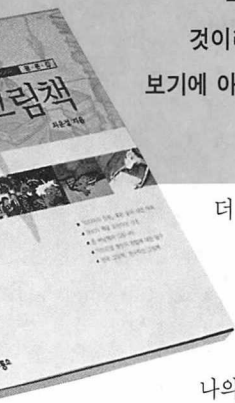
비룡소/A5변형/174면/10,000원

최윤정씨(43, 아동문학평론가)는 한동안 그림책에 푹 빠져 지냈다. 그가 읽은 그림책 목록에는 《리디아의 정원》(사라 스텐버그 글·데이비드 스몰 그림, 시공사)과 《지각대장 존》(박상희, 비룡소)을 비롯한 존 버닝햄의 책들, 가브리엘 뱅상의 그림책들이 빼곡이 들어차 있다. 이번에 펴낸 《그림책》(비룡소)은 그가 “그림책에 문혀 지낸 시간들에 대한 기록”이다. 그는 지금까지 읽었던 그림책들을 대상으로 ‘그림책’이라는 어린이 책의 특정장르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고찰했다.

## “그림책은 유아용이 아니다”

그림책은 글자를 모르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보여주는 책일 뿐인가. 이에 대해 최씨는 “누가 그림책 앞에 ‘유아용’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그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림책은 일종의 ‘종합예술’이다. 그는 최근 10년 사이 그림책은 일시적 ‘놀잇감’에서 음미하고 간직하는 ‘예술’이 됐다고 말한다. 그림책은 유아용이라는 선입견이 깨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림책은 취학 전 어린이를 위한 책 정도로 인식되고, 독자는 상당히 제한돼 있다. 문체는 그 속에 그림책을 우습게 보는 태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일반문학에 비해 어린이 문학이 우습게 보는 것과 같이, 어린이 문학 내에서도 그림책이



더 가볍게 여겨지는 것은 부당하다. 그림책은 동화나 동시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또 하나의 ‘장르’라는 ‘당연한

사실을 환기시키고 싶었다.” 1990년대 들어 우리 그림책은 크게 변화했다. 일러스트레이션을 비롯해 인쇄, 제본, 표지 디자인 등이 괄목성장했다. 그리고 길벗어린이의 〈내가 처음 가본 그림 박물관〉 시리즈, 보림출판사의 〈술거나라〉 시리즈처럼 우리의 전통문화를 담으려고 한 그림책들이 활발히 출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씨는 이들 책이 한국적인 색채에 골몰한 나머지 어린이의 현실을 잊고 만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한다.

“예술가의 창작활동은 자기 안을 응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림책을 포함한 어린이 문학은 다르다. 어린이 책은 자기 안이 아니라 밖에 있는 어린이를 바라봐야 한다. 어린이들에게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라고 주입시키는 것보다 잊고 있지만 우리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배려가 필요하다.”

최씨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그림책은 글에 그림을 그려 넣은 책이 아니라, 글과 그림이 함께 이야기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그만큼 일러스트레이션의 역할이 커졌다. 일러스트레이션은 더 이상 책을 장식하는 요소가 아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그림책들 역시 일러스트레이션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동어반복’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직까지도 그림은 글의 이해를 도와주는 보조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그림은 좋아졌는데, 그림책은 좋아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설명이다.

최윤정씨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림책은 글자를 모르는 아이들이 보는 ‘놀잇감’이 아니라, 동화나 동시와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하나의 ‘장르’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함께 이야기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만큼 일러스트레이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가 보기에 아직도 우리나라 그림책들은 ‘동어반복’이라는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다.

## 그림책 편집자의 역할 중요해

“동화는 일러스트레이션이 없어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림책은 일러스트레이션이 없으면 만들 수 없다. 일러스트레이터의 화풍에 따라서 완전히 작품이 달라진다. 일러스트레이션은 문학작품으로 치자면 문체에 해당한다. 또한 편집자의 주문에 따라 작품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 출판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좋은 그림책을 기획하고 조율하는 편집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는 좋은 어린이책을 고르는 비법은 따로 없다고 잘라 말한다. 단지, 누가 좋다고 하는 책을 아이들에게 읽힐 것이 아니라 부모가 좋다고 생각하는 책을 아이들에게 읽히려는 것이 그의 충고다.

이 책은 그림책에 대한 이론서도 아니고 그림책을 만드는 제작과정이나 그림책의 위상을 설명한 책도 아니다. 이 책은 단지 그림책의 매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림책 한권으로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의 말대로, 32쪽짜리 그림책 한권이 어린이들에게는 320쪽의 소설책보다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이 책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 최갑수 기자